

주간 증시 Check

BOJ 정책 동결 속 위험 자산 속도 조절 가능성



SUMMARY

[투자전략]

고승희

02-768-4071

seunghee.ko@dwsec.com

- BOJ 정책회의,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추가적인 완화 정책이 나오지 않음. 이에 엔화 강세 속 주요국 증시 하락. BOJ 정책 동결은 글로벌 유동성에 부정적. 위험 자산의 속도 조절 가능성에 무게. 그러나 미국 실질 금리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락 추세로의 전환은 나타나지 않을 것
- 5/1일 중국 4월 PMI제조업 지수 발표. 중국 정부의 재정 확대 속 투자 부분의 개선세가 나타나고, 부동산 가격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할 가능성에 무게
- 5/2일 미국 4월 ISM제조업 지수 발표. ISM제조업 지수 내 신규주문, 생산이 큰 폭으로 반등했고, 지수에 선행하는 '신규주문 - 재고 Spread'도 반등세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견조한 모습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외국인 순매수는 속도 조절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BOJ 정책 동결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주요국 실질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추세 전환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주요 이슈)

- 28일 BOJ 정책회의,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추가적인 완화 정책이 나오지 않음. 이에 따른 영향으로 엔화 강세가 나타나며 니케이 지수 3.6%하락. KOSPI도 외국인이 1,504억 순매도한 가운데 0.7%하락. 글로벌 유동성 장세 속 예상과 달리 추가 완화정책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위험 자산인 주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

- BOJ의 정책 동결은 글로벌 유동성에 부정적. 이에 따른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위험자산의 속도 조절 가능성에 무게. 그러나 미국 실질 금리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락 추세로의 전환은 나타나지 않을 것

(매크로)

- 5/1일 중국 4월 PMI제조업 지수 발표.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50.3P로 전월 50.2P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 중국 정부의 재정 확대 속 투자 부분의 개선세가 나타나고, 부동산 가격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PMI 제조업지수는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할 가능성에 무게

- 5/2일 미국 4월 ISM제조업 지수 발표.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51.5P로 전월 51.8P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상. 3월 ISM제조업 지수 내 신규주문, 생산이 큰 폭으로 반등했고, 지수에 선행하는 '신규주문 - 재고 Spread'도 반등세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견조한 모습 이어질 것으로 예상

(수급)

- 외국인 순매수는 속도 조절이 나타날 것. BOJ 정책 동결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그러나 주요국 실질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추세 전환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반면 기관은 투신권을 중심으로 순매도 기조를 나타낼 것. 주식형 펀드의 차익 실현 매물이 지속적으로 출회되고 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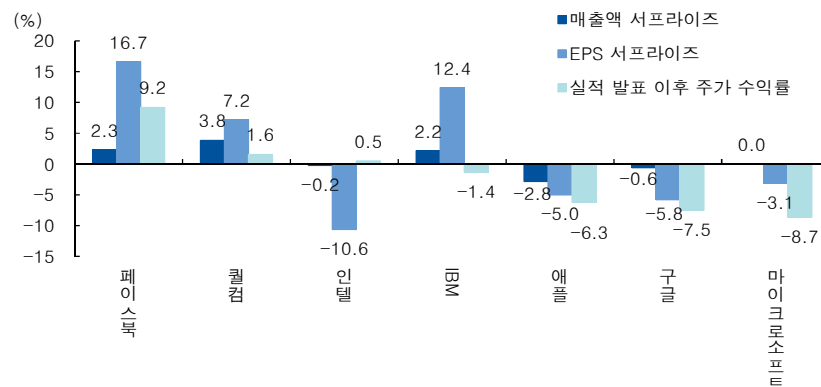
Chart of Week

성장주,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

미국 IT기업이 펀더멘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한 기업의 주가는 견조한 반면 쇼크를 기록한 기업들의 주가는 매우 부진하다. 애플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 505.6억 달러(예상치 520.2억 달러), EPS 1.9달러(예상치 2.0달러)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하회했다. 13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주가는 6.3%하락했다. 반면 페이스북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 53.8억 달러(예상치 52.6억 달러), EPS 0.77달러(예상치 0.66달러)를 기록하며 시간 외 주가가 9.2%급등했다.

에너지, 소재 섹터가 실적과 무관하게 강세를 보이는 반면 실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IT섹터는 특이하다. 주요국의 완화적인 정책 기조는 같지만 15년과 달리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 약세 속 중국 지표가 개선되면서 상품 가격이 반등했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에너지와 소재 섹터가 강세를 보였다. 반면 IT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속 성장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성장이 기대보다 낮은 IT기업들의 주가는 부진한 것이다. 이는 국내 성장주 투자에도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에너지, 소재, 산업재 섹터가 실적과 무관하게 강세를 보이는 반면 IT섹터는 실적에 민감하게 반응



자료: Factset,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주) 페이스북 주가는 시간외 종가

주간 경제지표 및 주요 이벤트

4/29~5/6일 주요 경제지표 및 이벤트

일자	국가	경제지표 및 이벤트	기간	단위	예상치	이전치
04월 29일	미국	개인소득	3월	%, MoM	0.3	0.2
		개인소비	3월	%, MoM	0.2	0.1
		PCE 디플레이터	3월	%, YoY	0.8	1.0
		근원 PCE	3월	%, YoY	1.5	1.7
		시카고 PMI	4월	P	52.8	53.6
	유로존	실질 GDP	1분기	%, YoY	1.4	1.6
05월 01일	중국	PMI 제조업	4월	P	50.3	50.2
05월 02일	미국	ISM 제조업지수	4월	P	51.5	51.8
05월 03일	중국	차이신 PMI 제조업	4월	P	49.8	49.7
05월 04일	미국	ADP 취업자 변동	4월	만 명	19.5	20.0
		ISM 비제조업지수	4월	P	54.8	54.5
05월 06일	미국	민간고용	4월	만 명	19.5	19.5
		실업률	4월	%	5.0	5.0
		시간당 평균 임금	4월	%, MoM	0.3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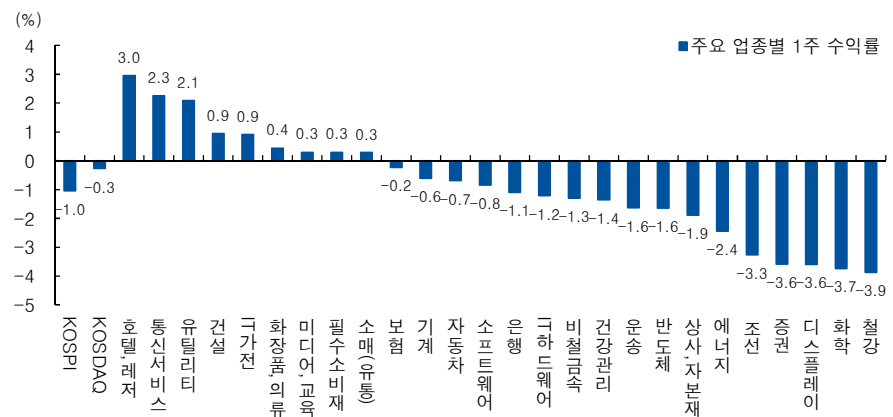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주간 Review: KOSPI -1.1%, KOSDAQ -0.3%

4월 미국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BOJ의 추가 완화 정책 부재로 KOSPI -1.1%하락 마감. BOJ의 정책 동결 발표가 되면서 주요국 증시 하락 반전. 2월 중순 이후 시장 반등의 핵심이 유동성이라는 점에서 예상과 다른 BOJ의 정책 동결은 글로벌 유동성에 부정적. 단기적으로 속도 조절이 나타날 가능성에 무게. 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실질 금리가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세 전환은 아니라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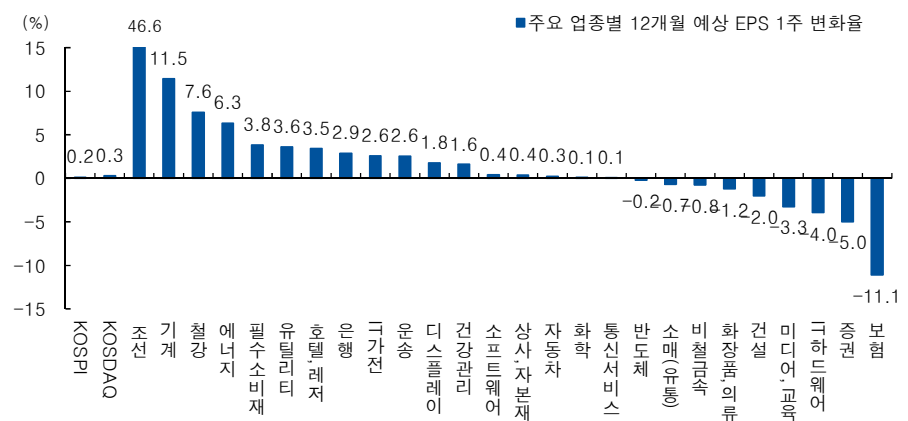
글로벌 리스크 지표는 소폭 반등. 미국 경제지표가 부진했고, 국채 금리도 완만히 상승했기 때문. 단기적으로 BOJ 정책 동결 속 리스크 지표 추가 반등에 무게가 완만히 상승함하락 지속. 우호적인 유동성 환경과 더불어 주요국 경제지표 개선세가 지속되며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

1주일 업종별 수익률: 호텔레저, 통신서비스, 유틸리티 강세. 철강, 화학, 디스플레이 약세



자료: Wisefn,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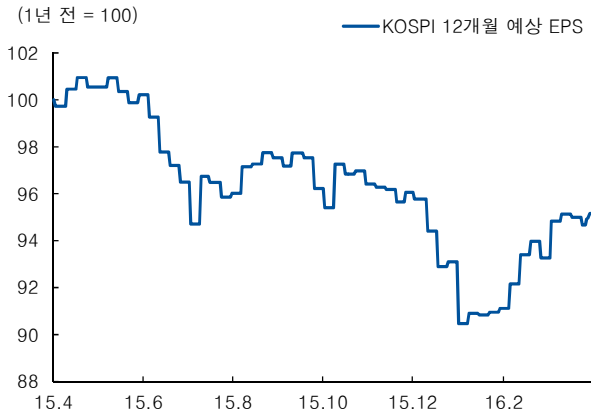
업종별 12개월 예상 EPS 1주 변화율: 조선, 기계, 철강 상승. 보험, 증권, IT하드웨어 하락



자료: Wisefn,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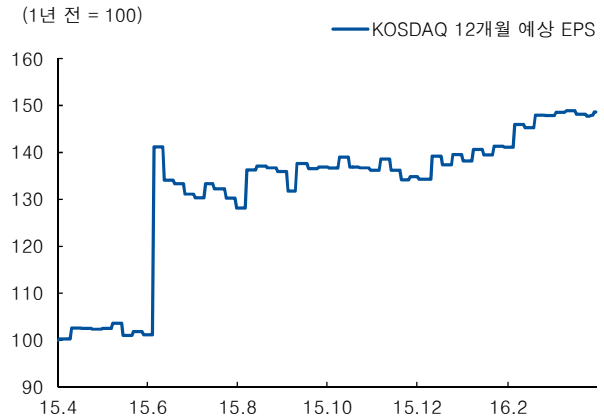
EPS, PER Review: KOSPI EPS 주간 0.2%상승, 12개월 예상 PER 10.8배

KOSPI 12개월 예상 EPS 추이: 주간 0.2%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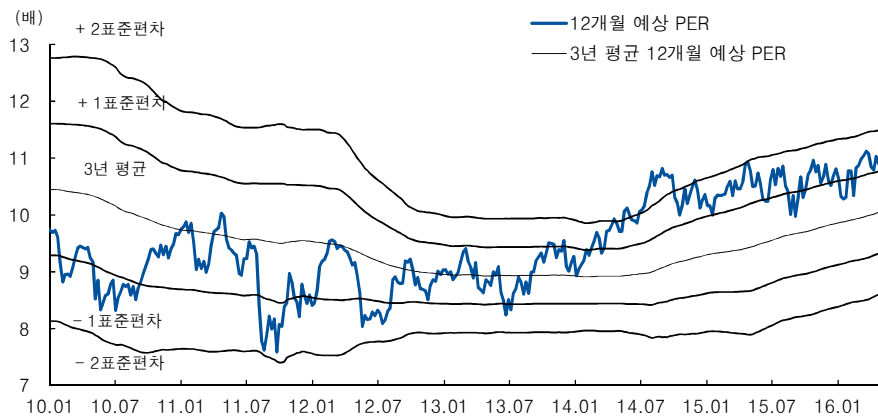
자료: Wisefn,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KOSDAQ 12개월 예상 EPS 추이: 주간 0.3%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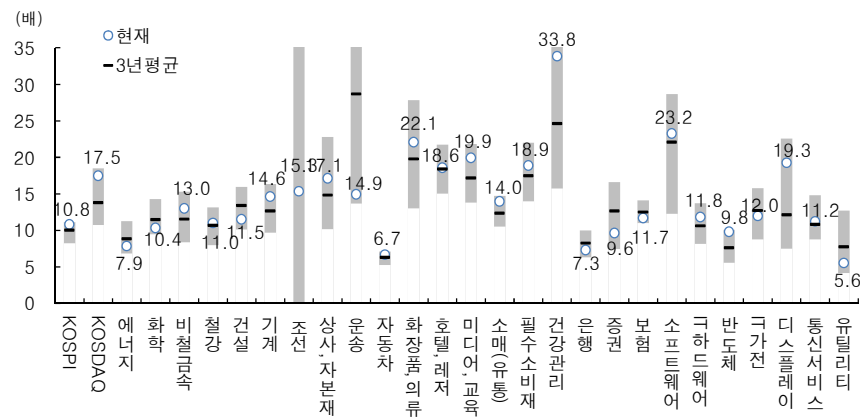
자료: Wisefn,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KOSPI 12개월 예상 PER 추이



자료: Wisefn,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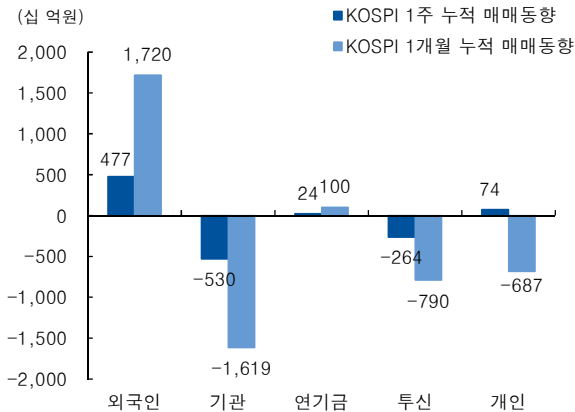
업종별 12개월 예상 3년 평균, 최대, 최소, 현재 PER 레벨



자료: Wisefn,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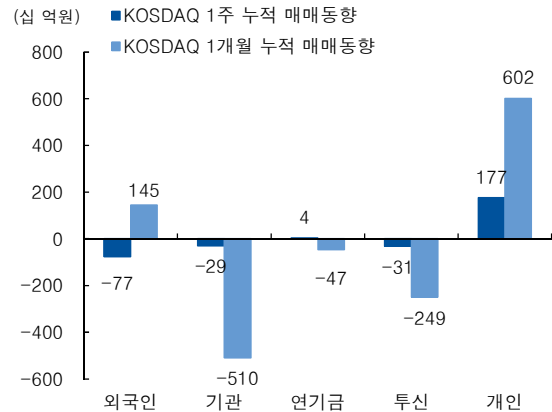
수급 동향: KOSPI 외국인 4,774억 순매수, 기관 5,301억 순매도

KOSPI 주요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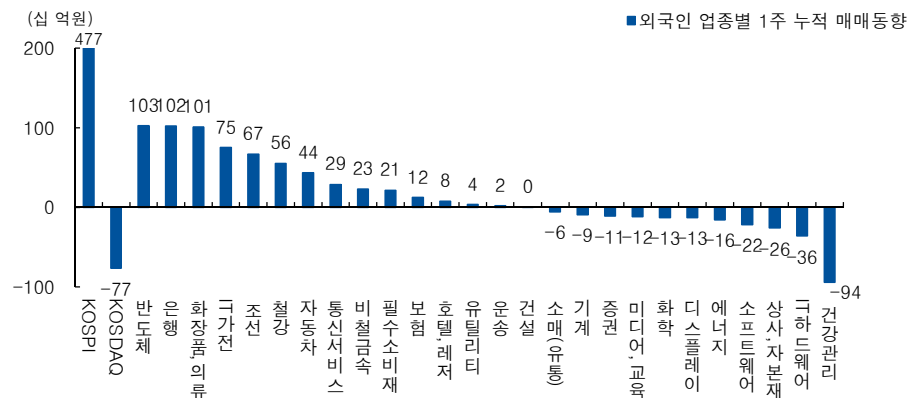
자료: Wisefn,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KOSDAQ 주요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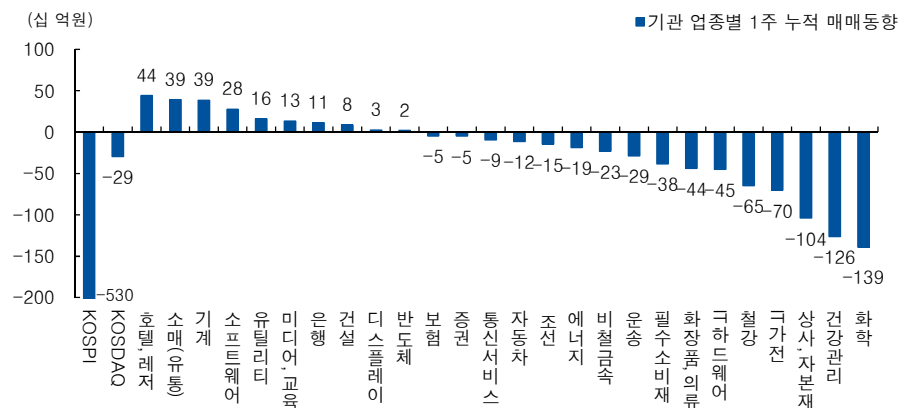
자료: Wisefn,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외국인, 업종별 주간 매매 동향: 반도체, 은행, 화장품의류 순매수. 건강관리, IT하드웨어, 상사자본재 순매도



자료: Wisefn,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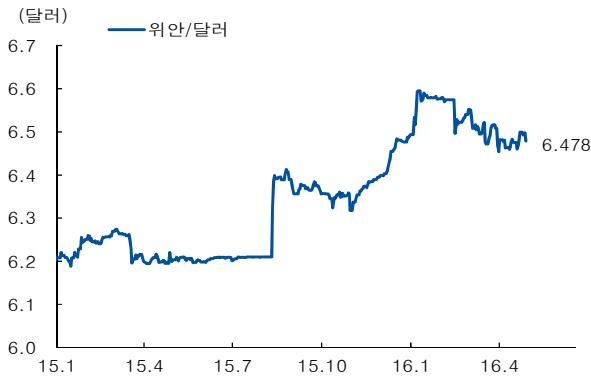
기관, 업종별 주간 매매 동향: 호텔레저, 소매, 기계 순매수. 화학, 건강관리, 상사자본재 순매도



자료: Wisefn,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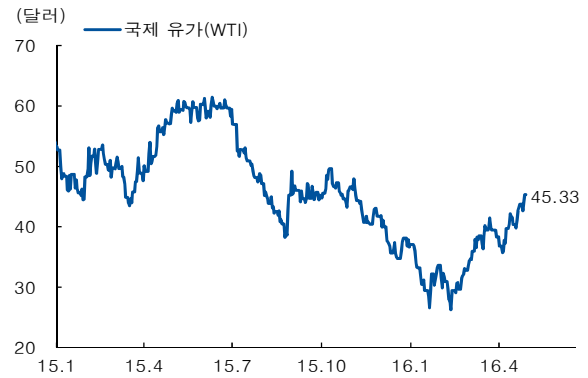
주요 Risk Factor

위안/달러 전주대비 소폭 절상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수급에 대한 우려 완화와 달러 약세 속 국제유가 반등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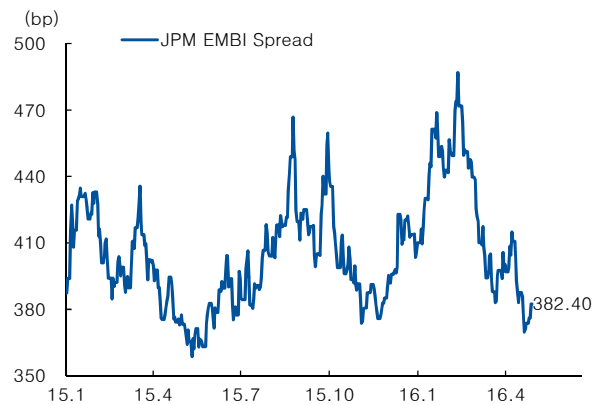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엔화 강세 속 달러, 신흥국 통화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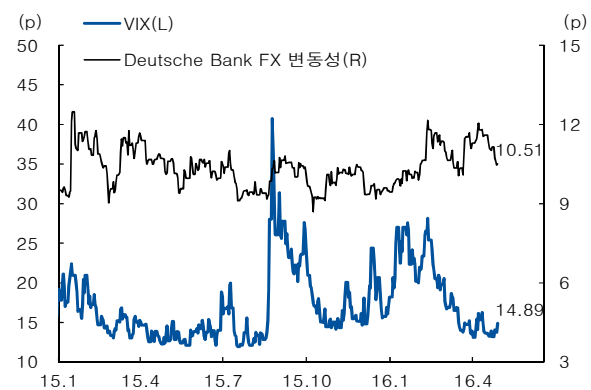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신흥국 통화 약세 속 EMBI Spread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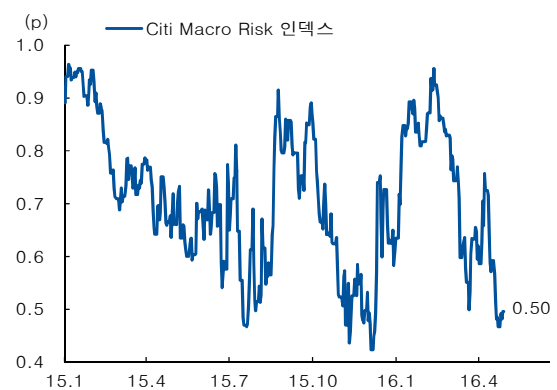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VIX 소폭 반등. 통화 변동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Citi Macro Risk 전주 대비 0.01P 상승한 0.50P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